

햇빛 없어도 채소 재배 OK!

LED燈 단 농진청 채소재배기 곧 선보



심지관수형 채소재배기는 실내에서는 재배하기 어려운 열무나 당근 같은 뿌리채소도 거뜬히 키울 수 있고 배추, 시금치 등의 잎채소와 청경채 같은 줄기채소도 문제없다. 사진제공_ 농촌진흥청

통 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물가는 4.0% 올랐다. 이만해도 꽤 높은 편이지만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압박은 훨씬 더 크다. 장바구니 물가, 특히 채소 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기상 악화의 영향으로 상추와 깻잎 가격은 각각 kg당 9천330원과 1만9천580원으로 치솟았다. 한 달 전에 비해 28.5%, 38.5%나 오른 수치다. 최근에는 호박과 감자, 고추 값마저 올라 “집에서 된장찌개 끓여 먹기도 부담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베란다나 옥상의 공간을 이용해 채소를 기르는 사람들은 나은 편이다. 공간의 제약 때문에 자체 수요를 모두 충당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요즘처럼 채소 값이 비쌀 때에는 가계에 쓸쓸한 보탬이 된다. 게다가 농약 염려도 없어 집안의 작은 공간에서 채소를 직접 가꾸려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게 문제다.

장마철에는 햇빛이 부족해 웃자라고 추운 겨울에는 얼어 죽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것도 무척 성가신 일이다.

4계절 내내 재배 가능

그러나 일반 가정에서도 채소를 간편하게 재배할 수 있는 길이 열려 화제를 모으고 있다. 계절이나 장소에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가정에서 채소를 키울 수 있는 ‘심지관수형 채소재배기’를 농촌진흥청 도시농업연구팀이 개발한 것.

이 재배기에는 흰색 발광 다이오드(LED)등(燈)이 부착돼 있어 가정에서 쓰기에 부담이 없고 조명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으므로 장소나 환경, 식물의 크기 등에 구애받지 않는다. 실내에서는 재배하기 어려운 열무나 당근 같은 뿌리채소도 거뜬히 키울 수 있고 배추, 시금치 등의 잎채소와 청경채 같은 줄기채소도 문제없다. 로즈마리나 민트 같은 허브는 물론이고 베란다에서는 햇빛 부족으로 초록색으로 변하기 일췌인 적상추도 본연의 색깔 그대로 식탁에 올릴 수 있다.

여행 떠나도 안심

채소를 가꾸려면 전원을 항상 켜 놓아야 하므로 전력 소모가 많을 것 같지만 LED등은 전력소모량이 적고 수명은 형광등의 20배나 된다. 발열량이 적은 것도 식물의 성장에 유리하다.

심지관수 방식이라 물과 양분 조절이 아주 간단한 것도 강점이다. 심지관수 방식이란 물을 위에서 주는 기존 방식과 달리 하단에 부착된 물통에 물을 담아 두면 심지를 타고 물이 흠 속으로 스며드는 것으로 저면관수 방식이라고도 한다. 동력이 필요 없는 데다 물이나 흠이 재배기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으므로 실내에서도 깨끗하게 재

최근 들어 채소 값이 치솟자 베란다나 옥상에서 채소를 기르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농약 염려가 없고 가게에 보탬도 되지만 집에서 채소 기르기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게 문제다. 장마철에는 햇빛이 부족해 웃자라고 추운 겨울철에는 얼어 죽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그러나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심지관수형 채소재배기'만 있으면 이런 걱정은 단번에 해결된다.

배할 수 있고 세척도 용이하다. 며칠 동안 여행을 떠날 때에도 걱정 없다. 상추를 재배할 경우 물 2L면 1주일 정도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가습과 온도 하강 효과는 덤

심지관수형 채소재배기는 농진청 도시농업연구팀 문지혜 박사를 비롯해 많은 사람이 직접 베란다에서 채소를 기르며 겪은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실생활에서 사용하기에 편리하게 개발됐다. 베란다 외에도 식탁, 주방, 거실 등 전기가 들어오는 곳이면 어디든 상관없고 밑에 달린 바퀴 덕분에 이동도 용이하다. 가로 49cm, 세로 29cm인 작은 용기와 67cm, 35cm인 큰 용기의 두 종류가 있으며 각각 상추 12포기와 18포기 정도를 심을

수 있다.

문 박사는 “식물은 증산작용을 통해 건조한 겨울철에는 가습기 역할을 하고 더운 여름철에는 실내온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말하고 “식물이 자라는 것을 직접 관찰할 수 있으므로 자녀 교육과 식습관 개선에도 좋은 영향을 주며 생활의 활력소로서 가정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에도 한몫하는 등 장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재배기는 이미 특허 출원이 완료된 상태이며 곧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농진청 관계자는 “벌써 몇몇 업체가 기술을 이전을 신청한 상태여서 올 상반기에는 상업화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가격은 10만~20만 원선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경익 기자 kki@yna.co.kr



베란다 외에도 식탁, 주방, 거실 등 전기가 들어오는 곳이라면 어디든 상관없고 밑에 달린 바퀴 덕분에 이동도 용이하다. 사진제공_ 농촌진흥청